

고린도후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관계와 신뢰가 흔들릴 때 참된 기독교 사역은 어떤 모습인가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인상적인 외양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형성된 사역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는 바뀐 계획을 설명하고, 화해를 호소하며, 관대한 지원을 조직하고, 반대자들에게 답합니다. 환난과 연약함이 누군가의 권위를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를 진실한 행동, 희생적인 섬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성장과 연결합니다.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이 편지는 이전의 서신, 고통스러운 방문, 디도가 전한 소식이 얹힌 긴장된 관계 속에 놓입니다. 보통 서기 50년대 중 후반 마케도냐에서 쓴 것으로 재구성합니다. 바울 저작은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학자들은 특히 10-13장을 중심으로 정경 본문이 여러 편지를 결합한 것인지 논의합니다. 전체 대화나 순서를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고 현재 형태를 주의 깊게 읽으세요.

성경 참조: 고후 1:12 - 고후 2:13 · 고후 7:5-16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돌봄이 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 연약한 전달자,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공동체 사이의 나눔이라는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고난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데로 모입니다. 헌금에 관한 장들은 영적 교제가 물질적인 결과를 지니며, 자원하는 나눔과 공개적인 책임을 수반함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의 엄중한 경고는 지배의 찬양이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성경 참조: 고후 3:1 - 고후 5:21 · 고후 8:1 - 고후 9:15 · 고후 12:1 - 고후 13:14

출처: primary

위로, 바뀐 계획, 용서

고후 1:1 - 고후 2:17

바울은 고통, 하나님을 의지함, 일부 독자가 의문을 제기한 듯한 일정 변경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의 기쁨을 염려한다고 밝히며 권징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합니다. 회개 후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은 피해를 부정하거나 책임의 필요를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생각해 보기

바울의 응답에서 진실함,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 용서는 어떻게 함께 작용하나요?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긴 보화

고후 3:1 - 고후 4:18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정죄와 대조하고, 고난받는 전달자들을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제시합니다. 모세에 대한 그의 해석은 새 언약의 기독교적 설명을 전개하며, 유대인에 대한 멸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 부정직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보화의 가치는 왜 전달자가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지에 달려 있지 않나요?

화해와 열린 마음

고후 5:1 - 고후 7:16

미래의 부활 소망은 현재의 신실함에 긴박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를 이루시고 전달자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마음을 열라는 바울의 호소에는 도덕적 진지함과 회개에 대한 기쁨이 함께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결합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 관한 것이지, 불신자와의 모든 관계에서 물러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변화로 이끄는 슬픔과 그저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슬픔은 어떻게 다른가요?

진실성 있는 나눔

고후 8:1 - 고후 9:15

마게도냐의 관대함과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이 예루살렘 헌금을 바라보는 틀이 됩니다. 바울은 형편을 넘는 강요가 아니라 가진 것에 따른 자발성을 구합니다. 신뢰받는 동료들이 선물을 관리하여 그 진실성을 보호합니다. 농사의 이미지는 관대한 참여를 격려하는 것으로 읽어야 하며, 헌금하면 개인적 부를 얻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자발성, 형편에 맞는 나눔, 투명한 관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신뢰할 만한 일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후 10:1 - 고후 11:33

바울은 인상적인 외모나 능력을 기준으로 한 비교에 도전하며,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고난의 이야기로 경쟁자들의 주장에 답합니다. 그의 권위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은 그의 이야기의 일부지만, 본문이 확대하는 지도력을 신뢰할 만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에게 속임수를 눈감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바울의 섬김 이야기는 반대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듯한 자격을 어떻게 뒤집나요?

연약함에 충분한 은혜

고후 12:1 - 고후 13:14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자신의 토대로 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거듭 없애 달라고 요청했던 정체불명의 가시를 설명합니다. 본문은 확신에 찬 의학적 진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붙들습니다. 편지는 신실한 사람이 결코 힘겨워하지 않는다는 약속 대신 자기 성찰, 회복, 평화로 끝납니다.

생각해 보기

은혜에 의존하는 것은 고통을 덜어 달라는 정직한 기도 및 실제적인 돌봄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출처

- [primary] 2 Corinthians;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2CO.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23.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2-corinthians>